

〈하기 글은 2015년 10월 21일 삼성전자 소통블로그에 게재된 글입니다〉

최근 TV 예능프로그램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소통'입니다. 단순한 재미만을 추구하였던 예전의 예능 트렌드와 달리 소통을 앞세운 감동적인 예능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SBS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는 속 깊은 대화를 통해 사춘기 자녀와 부모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주말 저녁에 훈훈함을 전하는 중입니다.

이렇듯 소통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 하나의 비결로 자리잡았는데요.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위원들 역시 아름답고 훈훈한 지역사회를 위해 발로 뛰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나눔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조금 더 생생하게 듣기 위해 '찾아가는 소통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다들 기억하시나요? 지난 15일에 진행된 10월의 정기회의는 많은 주민들이 찾는 화성시 동탄1동 주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반가운 인사와 함께 시작된 10월 정기회의는 가을을 맞아 걷기 좋은 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막을 올렸는데요.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반석산 노작공원부터 병점 지역의 구봉산 근린공원까지 이어져 있는 '화성시 도시숲트레킹 코스'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트레킹 코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며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삼성전자의 사회공헌활동을 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나눔 활동이 돋보였는데요.



화성시 청소년들의 진로를 함께 탐색해보았던 '2015 드림樂서·화성편'과 지역아동센터 인프라 개선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교구장 만들기 핸즈온(Hands-on) 봉사활동'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의 모든 위원들은 우리의 꿈나무들을 위한 이러한 활동이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답니다.



이 밖에도 걷기를 통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화성시와 함께 하는 삼성나눔워킹페스티벌'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모두들 총 2만여명의 시민과 임직원들이 동탄 센트럴파크 주변을 걷는 장관을 상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와 더불어 행사 내 부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각종 나눔 활동에 관심을 보이며 당일 행사 참여까지 약속하였습니다.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의 열띤 토론**



이번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10월 정기회의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의견이 오가면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위원들은 지역사회를 위한 삼성전자의 활동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때로는 쓴 소리까지 아끼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솔직하고 활발한 의견 교환이 앞으로 삼성전자와 지역사회 간의 원활하고 기분 좋은 소통을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을 삼성나노시티로 초대하는 '지역주민 초청행사'가 지난 9월 기준으로 누적 방문 인원이 1만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에 진심 어린 축하가 이어졌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초청행사를 진행하여 이웃들과 더 가까워지겠다는 계획이 모두에게 공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요 민원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이웃들의 편의를 위해 즉각 조치를 취했던 삼성전자의 노력을 전달하며 서로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졌던 10월의 정기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김연환 대표위원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곧 즐겁고 좋은 일이 오게 마련이다'라는 말을 건네며,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의 활발한 소통으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끝 인사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정기 회의의 모든 순서가 끝난 후,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윤재원 위원을 만나 회의에 참여한 소감을 들어 보았습니다.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윤재원 위원

|" 우선 화성시 동탄1동에서 방문해주신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나와 화성시 지역에서 정기회의를 진행한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그때마다 각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 이런 기회가 계속 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재원 위원 /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지금까지 화성시 동탄1동에서 진행된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10월 정기회의의 현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업과 지역사회간의 소통을 위해 한걸음씩 성큼성큼 걸어가는 이들의 모습이 어떠신가요? 아름답고 훈훈한 지역사회를 위해 발로 뛰는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에게 아낌없는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